



KIA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갖고 1위 굳히기와 100만 관중 돌파를 시도한다. 챔피언스필드를 가득 메운 관중.

(KIA 타이거즈 제공)

KIA 1위 굳히고 100만 관중 돌파한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1위와 100만 관중을 동시에 잡는다.

지난 주말 다시 한번 '2위 사냥'에 성공한 KIA는 20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이어 23일에는 창원으로 이동해 NC 다이노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특히 챔피언스필드에 눈길이 쏠린다. 4연승 중인 KIA가 1위 독주와 100만 관중을 동시에 노린다.

KIA는 지난 주말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미리 보는 한국시리즈'를 치렀다.

최근 타격 하락세로 고전을 이어온 1위 KIA와 4경기 차까지 쫓아온 2위 LG의 흥미로운 맞대결. 결과는 예상보다 싱거운 KIA의 스윙승이었다.

17일 3연전 첫 경기 9회초가 두 팀의 운명을 바꾼 장면이었다.

이날 KIA는 LG 선발 최원태에게 막혀 단 1점도 내지 못하고 0-2에서 9회초 공격을 맞았다. 최원준의 볼넷과 김도영의 동점 2루타로 분위기를 바꾼 KIA는 나성범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단숨에 3-2를 만들고 마지막에 웃었다.

KIA는 기세를 이어 18일에는 나성범의 3경기 연속 홈런, 김도영의 만루포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백투백 홈런으로 14-4 대승을 거뒀다.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가 108구로 어렵게 5회를 막았지만, 화끈한 타선의 도움으로 5이닝 1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다.

19일에는 3회 1사 1·3루에서 나온 최원준의 기습 번트로 선취점을 만든 뒤 리드를 내주지 않고 4

롯데와 3연전 '열세' 극복 속제 선발 황동하·김도현 역할 막중 주말엔 창원에서 NC와 맞붙어 챔피언스필드 관중 94만8704명

-0, 스윙승을 완성했다.

KIA는 4연승 질주로 LG를 7경기 차로 밀어냈다. LG가 고전하는 사이 삼성이 3연승에 성공하면서 2위를 탈환, 5.5경기차 밖에 있다.

KIA는 안방에서 연승을 이어가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상대가 8위에 자리하고 있는 롯데지만 KIA에 어려운 상대. 올 시즌 KIA는 롯데에 3승 1무 7패로 가장 상대전적이 좋지 않다. 충격의 15-15 무승부 기록도 있다.

가장 많은 5경기가 남아있는 상대이기도 한 만큼 KIA는 주중 3연전에서 무조건 우위를 점해야 한다.

부상 선발전에서 만점 활약을 해주고 있는 황동하와 김도현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 황동하는 20일 경기 선발로 나와 롯데 김진욱과 기싸움을 벌이게 된다.

1위 질주 속 '슈퍼스타' 김도영을 앞세워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KIA는 100만 관중 돌파도 노린다.

KIA와 LG의 지난 주말 3연전 내내 만원 관중이 입장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KBO는 18일 역대 최대 관중 새 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5개 구장에 9만 1527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

즌 누적 관중수는 847만 5664명이 됐다. 2017시즌 840만 688명을 넘어선 새로운 기록이다.

챔피언스필드에서도 새 기록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다.

KIA는 앞서 홈에서 치른 55경기에 94만8704명

을 불러들이면서 두 번째 100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다. KIA는 11번째 우승을 이뤘던 2017시즌 102만4830명(1만4234명)을 동원하면서 첫 100만 관중 기록을 달성했다.

롯데 3연전에서 5만1296명이 입장하면 타이거즈

역사상 두 번째 100만 관중 대기록이 만들어진다.

올 시즌 1만7249명의 평균 관중을 기록하고 있고, 4연승으로 분위기를 탄 만큼 주중 롯데전에서 100만 카운트 다운이 끝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연소 30-30' KIA 김도영에 '통 큰 축하'

The Kia EV3 승용차 전달

'최연소·최소경기 30-30' 주인공인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기아로부터 통 큰 선물을 받았다.

(사진)

김도영은 지난 1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30홈런-30도루'를 달성했다. 20세 10개월 13일이라는 나이에 111경기 만에 이룬 최연소·최소경기 기록이다.

대기록을 달성한 김도영을 위해 KIA는 '더기아 EV3(The Kia EV3, 이하 EV3)'를 선물했다.

김도영은 19일 서울 압구정에 있는 브랜드 체험관인 Kia 360에서 차량 전달식을 통해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인 EV3를 전달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KIA 타이거즈 최준영 대표이사과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이 참석해 김도영의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다.

김도영은 "EV3를 선물로 받게 돼 정말 기쁘고, 나의 첫 전기차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최고의 팬들과 함께 한국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김도영은 올 시즌 KBO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10도루' 기록을 시작으로 '전반기

20-20',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등을 작성하면서 기록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골 리드 못 지키고...광주FC 4연승 실패

K리그1 27R 강원FC에 2-3 패

광주FC가 강원FC의 화력에 막혀 4연승에 실패했다.

광주는 지난 18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2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3패를 기록했다. 아사시의 활약으로 2점을 먼저 만들었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4연승이 무산됐다.

전반 13분 공을 몰고 상대 페널티 지역에 진입한 이근희가 강원 이기혁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아사시가 키커로 나서 왼발로 골대를 뚫으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이어 21분 아사시가 오른발로 날린 슈팅이 상대

강투지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광주가 자책골로 2-0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반 막판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코바체비치가 결국 광주의 골대를 뚫었다. 후반 추가 시간 코바체비치의 헤더로 실점을 한 광주는 후반 5분 멀티골까지 허용했다.

그리고 후반 29분에는 강원 헨리의 머리가 광주 골대를 갈랐다.

광주는 부지런히 공세를 벌였지만 이희준의 슈팅이 골대에 이어 골키퍼 발에 막히는 등 추가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던 광주지만 강원과의 화력은 막강했다.

광주를 상대로 3골을 추가한 강원(15승 5무 7패

·승점 50)은 '51골'로 득점 1위의 면모를 보이면서 2위 김천상무(13승 7무 7패·승점 46)를 4점 차로 밀어냈다.

7위 광주(12승 1무 14패·승점 37)는 6위 FC서울(12승 6무 9패·승점 42)과 5점 차로 멀어졌다.

연승을 마감한 광주는 바로 다시 스피이크르겐을 조여 맨다. 코리아컵과 리그 일정이 연달아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21일 오후 7시 코리아컵 결승 티켓을 놓고 울산HD와 4강전 홈경기를 치른다. 25일에도 다시 울산을 상대로 순위 싸움을 이어간다. 울산과의 28라운드 맞대결도 홈경기로 진행되며 오후 7시 시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투어 임성재, 6년 연속 '최후의 30인' 보인다

PO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

임성재가 6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출전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임성재는 19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공동 40위(3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랭킹은 9위에서 10위로 1계단 하락했지만, 임성재는 랭킹 50위까지 나가는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손에 넣었다.

임성재가 BMW 챔피언십에서 페덱스컵 랭킹

30위 이내를 유지하면 '최후의 30명'이 올해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투어 챔피언십에 6년 연속 출전하게 된다.

임성재는 또 내년에도 PGA 투어 8개 특급 대회에 모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LIV 골프에 대항해 만든 특급 대회는 총상금이 2000만 달러에 우승 상금이 360만 달러에 이른다. 특급 대회는 전년도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선수에게 우선 출전권을 준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송시훈 '미스터 YMCA' 대상

'제54회 미스터 YMCA 선발 대회'에서 송시훈(광주시체육회)이 미스터 YMCA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송시훈은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안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보디빌딩 일반부 80kg 이하급 1위를 차지한 뒤 체급별 우승자들과 두 차례 비교 심사를 거쳐 대상을 받았다.

미스터 YMCA 대상은 체급과 관계없이 남자 일반부 보디빌딩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된다.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식품 및 천연물화학 박사 과정을 전공하며 보디빌딩을 병행하고 있는 송시훈은 지난해 미스터 YMCA 선발대회

남자일반부 -80kg급 1위, 2023 미스터 코리아를 래식보디빌딩 -180cm급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도 출전했다.

송시훈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하며 머신 위주 운동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실험실 퇴근 후 1시간 반 정도씩 시간을 내서 운동했다"며 "올해는 본업에 집중한 뒤 내년 미스터 코리아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송시훈은 서울YMCA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트레이닝 강습회 초청 강사 및 시범 경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